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② 03. ① 04. ⑤ 05. ⑤ 06. ③ 07. ② 08. ⑤ 09. ① 10. ③
 11. ② 12. ④ 13. ⑤ 14. ① 15. ① 16. ④ 17. ⑤ 18. ③ 19. ② 20. ②

1. 순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는 순자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우리가 그 본성에 따라 행동하면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예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추구한 노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이다.
- ②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이다.
- ③ 불교 사상가인 석가모니가 강조한 삶의 태도이다.
- ⑤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추구한 장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이다.

2. 케인스와 하이에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수정자본주의 사상가인 케인스이고, 을은 신자유주의 사상가인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케인스는 하이에크와 마찬가지로 사유 재산제를 지지하였다.
- ③ 하이에크는 정부 규모와 기능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 ④ 하이에크는 계획 경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 ⑤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였다.

3. 플라톤과 베이컨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베이컨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각각의 사물에는 그것들의 이데아가 있으며, 최고의 이데아는 선(善)의 이데아이다. 그리고 이성을 통해 이러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 지식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를 통치하는 자는 지혜는 물론이고 용기와 절제의 덕도 갖추어야 한다.
- ③ 베이컨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은 참된 귀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 ④ 베이컨에 따르면 인간은 정신과 감각의 불완전성 때문에 우상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

⑤ 플라톤은 관찰과 실험 같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도 이데아를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았다.

4. 의천과 지눌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의천이고, 을은 지눌이다. 의천은 교관겸수(教觀兼修)를 주장하였고, 지눌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강조하였다. 특히 지눌은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제시하였다. 즉,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을 수심(修心)의 요체로 삼았다. 그러나 두 사상가는 모두 세상 만물이 항상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의천은 불교 사상가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 ② 의천은 경전 공부는 물론이고 참선 수행도 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지눌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강조하였다.
- ④ 지눌은 선(禪)은 부처의 마음과 같고 교(教)는 부처의 말씀과 같다고 보았다.

5. 모어와 마르크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유토피아'를 이상 사회로 제시한 모어이고, 을은 공산 사회를 추구한 마르크스이다. '유토피아'의 성인들은 누구나 6시간 이내의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고, 8시간 잠자고 남은 시간에는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 활동을 한다(ㄴ). 공산 사회에서는 모든 계급이 사라지고 구성원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ㄷ). 그리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모어와 마르크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유토피아'와 공산 사회는 모두 재화의 공동 소유가 실현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6. 주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주희이다. 주희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양지(良知)를 지니고 있지만 궁리(窮理)를 하지 않으면 이치를 통달할 수 없다. 이때의 궁리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희는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여 나의 앎을 극진히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주희가 강조한 거인욕존천리(去人欲存天理)이다.
- ② 주희가 강조한 경(敬)의 실천 자세이다.
- ④ 주희가 강조한 존양성찰(存養省察)이다.
- ⑤ '격물치지'에 대한 왕수인의 해석이다.

7.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프로타고라스이고, 을은 소크라테스이며,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악행은 모두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보편타당한 진리나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감정과 행동에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질투와 절도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과 행동이다.
- ④ 프로타고라스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⑤ 소크라테스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 행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만으로는 덕을 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8. 증산교와 원불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증산교의 기본 입장이고, (나)는 원불교의 기본 입장이다. 증산교는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갖 원한들을 풀어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불교는 일원상(一圓相)을 신앙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삼학(三學)에 힘써 정신과 육체를 함께 온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증산교와 원불교는 모두 성리학적 질서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전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증산교는 신분의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 ② 증산교는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무속과 도가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 ③ 원불교는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함께 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원불교는 기존의 불교를 개혁하여 한국형 생활 불교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9.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사르트르이고,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가인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유신론적 실존주의 사상가인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신 앞에 홀로 나가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겠다고 주체적으로 결단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미리 정해진 객관적인 목적이 없다.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인간은 각자가 주체적으로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참된 실존에 이르기 위한 최고의 단계인 종교적 실존 단계에

서는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한다.

④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 사유가 아니라 주체적 결단을 통해서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10. 홉스와 로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홉스이고,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는데 비해 로크는 비교적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로 보았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권은 국가의 성립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홉스에 따르면 평화와 안전의 보장은 사회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가능하다.
- ②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 보존 욕구와 함께 이성을 지니고 있다.
- ④ 로크에 따르면 국가가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로크는 군주의 절대권을 중시한 홉스와 달리 권력 분립을 강조하였다.

11. 칸트, 벤담, 밀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칸트이고, 을은 벤담이며, 병은 밀이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은 행복이나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런데 벤담에 따르면 삶의 목적은 행복이고 도덕은 그러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벤담은 칸트에게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임을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벤담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③ 벤담은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이 곧 사회 전체의 행복이라고 보았다.
- ④ 밀은 행위 관련 당사자들의 쾌락의 양과 질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칸트는 쾌락의 추구도 개인의 행위 준칙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2. 노자와 장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노자이고, 을은 장자이다.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강조하였고 장자는 소요(逍遙)를 추구하였다. 소요란 특정한 목적 없이 노니는 것으로서, 어떠한 외물(外物)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이다(ㄴ). 노자와 장자는 모두 선악, 미추(美醜) 등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노자는 인의(仁義)를 도(道)가 사라지자 나타난 인위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 ㄷ. 노자와 장자는 모두 큰 나라와 많은 백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노자에 따르면 이상적인 사회는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다.

13.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우구스티누스이고, 을은 루터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루터는 당시 가톨릭의 '오직 교회로만'이라는 입장을 비판하고 신앙주의, 성서주의, 만인사제주의를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누구나 성서와 기도를 통해 신과 대화할 수 있다(ㄷ).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 따르면 구원은 신의 은총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ㄴ).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ㄴ.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종교적 덕이다.

14. 스피노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그러한 사실을 관조하면 참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스피노자는 인격신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신은 곧 자연이다.

③ 스피노자는 모든 감정의 제거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이 타당한 원인이 되어 생겨난 기쁨이나 사랑과 같은 능동적 감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④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는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⑤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기 보존의 욕망은 삶의 추동력이 된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보존하고 완성을 추구할 수 있다.

15. 공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공자이다. 공자는 인(仁)과 예(禮)를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기적인 욕망을 이기고 예를 따라야 인이 실현된다. 그래서 그는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는 예를 행할 때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공자에 따르면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임금은 신하를 예로 대해야 한다.

③ 공자가 중시하는 예는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규범이다. 만약 인의 정신이 없는 예를 행한다면 그것은 허례(虛禮)일 뿐이다.

④ 공자에 따르면 효(孝)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건 돌아가신 이후이건 항상 예로 모시는 것이다.

⑤ 공자에 따르면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된다.

16. 이황과 이이의 이기론과 사단칠정론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이고, 을은 이이다. 이황은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근거해서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이이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으로서 그 연원이 같다(ㄱ). 기는 발하는 것이고 이는 발하는 까닭일 뿐이기 때문이다(ㄴ). 그리고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ㄷ).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이황과 이이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인은 정(情)이 아니라 성(性)이기 때문이다.

17. 정약용이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그는 성리학의 성즉리설(性卽理說)을 부정하고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의 단서설(端緒說)을 비판하면서 단시설(端始說)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정약용은 성리학자인 이황에게 사덕은 본성에 내재하는 이치가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따라 행동함으로써 형성되는 덕임을 모르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이황은 사단을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도덕 감정으로 보았다.
- ② 이황은 사단을 사덕이 마음에 내재함을 알려 주는 실마리로 보았다.
- ③ 이황은 사단을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선천적인 감정으로 보았다.
- ④ 이황은 사덕을 마음에 갖추어진 본성으로 보았다.

18. 갈통과 목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갈통이고, 을은 목자이다. 목자는 나와 남, 내 가족과 남의 가족, 내 나라와 남의 나라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나눌 것[兼愛交利(겸애교리)]을 강조하고 침략 전쟁에 반대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내 나라와 남의 나라를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류애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갈통은 직접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극복한 상태를 진정한 평화로 보았다.
- ② 갈통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뿐만이 아니라 사회 제도나 관습에 따른 억압이나 착취와 같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없는 적극적 평화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목자는 친소를 분별하지 않고 내 나라와 남의 나라를 똑같이 사랑할 것을 강조하였다.

⑤ 갈통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였고, 목자는 침략 전쟁에 반대하였다.

19.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쾌락주의 사상가인 에피쿠로스이고, 을은 스토아 사상가인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인 아타락시아(ataraxia)를 참된 쾌락으로 보고 추구하였다(ㄱ). 이에 비해 에픽테토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인 아파테이아(apatheia)를 이상적인 상태로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욕망과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은둔적인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 쾌락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ㄷ. 에피쿠로스는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 자유에 대한 벌린과 페팅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현대 자유주의 사상가인 벌린이고, 을은 현대 공화주의자인 페팅이다. 벌린은 ‘~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다(ㄱ). 이에 비해 페팅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즉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를 참된 자유로 보았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페팅에 따르면 시민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참여 및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ㄷ. 페팅에 따르면 공화국의 시민은 그들이 참여해서 만든 법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누릴 수 있다.